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성경 사도행전 15:36-41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소서.

찬양

1 나의 영혼이 잠잠히(은혜의 찬양 377장)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1



2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찬송가 546장)

2



- 1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 2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 3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 4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성령 인도하는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후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읽기 사도행전 15:36-41

- 36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 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 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 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 40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 41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본문 배경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행 15:35)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방문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을 했고, 끝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안디옥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강건하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둘 다 복음 전파를 향한 헌신과 열정이 있었지만, 각자의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툼이 있었지만, 이들의 다툼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어 갈라진 것은 오히려 선교 인원이 둘에서 넷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이들은 더 넓은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굳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갈등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등에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되었습니다. 구원 계획은 오직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말씀 관찰

1 바울과 바나바는 왜 다투었나요?(37-39절)

답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해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며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곳들을 돌아보며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요한도 함께 데려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일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전에 밤빌리아에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이 있었지만,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고 끝내 각자의 길로 갈라섭니다.

2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은 이후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나요?(40-41절)

답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 실라와 함께 수리아,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다툼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행한 사역이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한 갈등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 전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었습니다.

말씀 적용

1 다툼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2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말씀 암송

11-4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에베소서 3장 11절

Swing

♩ = 120

작곡 이종운



가정에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람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